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반 넓혔다

익산예술의전당, 올해 기획공연 22건·기획전시 6건으로 시민 문화생활 풍성

익산시가 익산예술의전당을 중심으로 2025년 한 해 공연·전시·예술교육을 고르게 확대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도시 기반을 넓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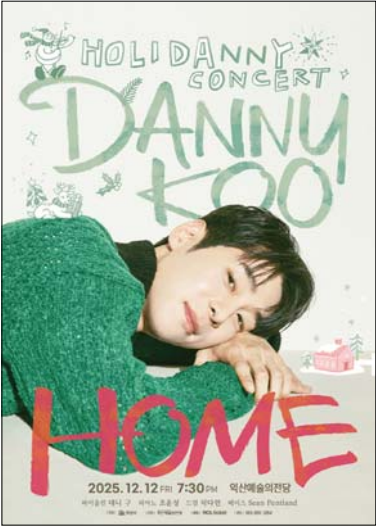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예술의전당은 올해 시민 선호도를 반영해 기획공연 22건과 기획전시 6건을 선보이며 지역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강화했다.

또한 문화예술 아카데미 6개 강좌 운영과 시립예술단 정기공연 6회를 비롯해 대관공연 활성화로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 기반 확대에도 힘썼다.

기획공연은 세대·유형별 선호를 고려해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로 구성했다. 특히 공모사업에 선정돼 △창작가무극 '윤동주 달을 소다' △몬드리안 더 라인 오브옵세션 △가곡의 별 △국립현대무용단 '정글'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여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했다.

올해 기획공연은 오는 12일 열리는 '대니 구 윈터 콘서트 홈(HOME)'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기획전시는 총 6회 운영돼 약 2만 명이 관람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폭을 넓혔다.

지난 3월 '2025 익산미술상생전'을 시작으로 4월 '어린이특별전 마법미술관' 5월 '이외



대니 구 윈터 콘서트 홈(HOME) 포스터

조각관-일상의 조각' △6월 '베리어프리 전시' '너에게 닿는 푸른 물결'이 진행됐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된 전북도립미술관 협력전시 '산중마루'는 전북의 자연 풍경을 담은 작

품을 익산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어 7~9월에는 '지역작가 초대전-싸움의 계보'가 열려 지역 예술인과의 교류를 확장했다.

익산시립예술단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정기공연 6회를 비롯해 축제와 기관 초청공연 등 총 110여 회 무대를 선보이며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높였다. '행복플러스', '예술아날지' 등 찾아가는 공연은 지역 곳곳에서 사랑을 받았다.

문화예술 아카데미는 미술아론, 수채화, 한국화(민화), 유화 미술로 표현하기, 어린이 교육 등 6개 강좌가 운영돼 시민의 예술 활동 참여를 확대했다. 어린이 대상 다이나믹 미술 교육-뚝뚝뚝뚝 종이집은 가족 단위 참여가 활발해 창의적인 체험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

익산예술의전당은 내년에 공연·전시·예술교육을 강화하며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해 문화예술 도시 익산의 이미지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 선호도를 반영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2026년에도 시민들이 삶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더욱 폭넓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기자

국립민속국악원, 국악 강좌 성료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이 주최한 2025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이 지난 8일 오후 3시, 예원당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개 강좌가 확대되며 총 15개 과목으로 운영, 83명이 참여해 갈고닦은 실력을 수료발표회에서 선보였다.

수료발표회는 해금·대금·관소리·가야금·가야금병창·민요·한국무용·장구·팽고리·아쟁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 수강생들이 자신감 있는 연주와 춤사위를 펼쳤으며, △해금(초급) 정례꽃·홀로이리랑 △관소리 춘향가 △가야금 중급반 휘모리와 동해바다 △민요 한강수타령·진도아리랑 △한국무용 살풀이·대강무 등이 이어졌고 △고급반은 관소리·민요·병창반의 장단을 맞추는 반주 역할을 맡아 전체 무대의 완성도를 높였다.

청출어람 강좌는 국악을 처음 접하는 초급부터 실기 능력을 심화하는 중급까지 단계별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출석 기준을 충족한 79명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한편, 국립민속국악원은 2026년에도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을 개설할 예정이며, 강좌 일정과 모집 관련 사항은 내년 3월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기자

내실 있는 공립박물관 운영 빛났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체부 평가 4회 연속 인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4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장 안승섭)은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2017년, 2019년, 2022년, 2025년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연속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공립박물관 평가 인증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따라 공립박물관 운영 수준을 향상하고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평가인증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평가항목 중 특히, △소장품 관리의 전문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인정 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 체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증기간은 3년이며, 인증기관에는 인증서가 발급되고 대외 공식 자격이 부여된다.

2025년 평가에는 전국 206개 공립박물관이 참여했다. 평가는 2022~2024년 기간의 운영 성과를 기반으로 사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진행됐다. 주요 평가지표는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 수

집·관리의 충실성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적, 공적 책임 이행 등이다.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19곳 중, 4회 연속 인증을 받은 기관은 5곳이며, 그중 하나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2004년 개관 이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전문적으로 전시·교육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가장 많이 보존·관리하는 중심 기관이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현재 '대운산 동학농민혁명 최후항전지'를 주제로 임채욱 사진작가 특별전을 개최해 지역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평가인증을 계기로 공립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와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역사문화체험을 누릴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운영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오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따뜻한 공예가 머무는 곳-온기서린’

전주공예품전시관, 내년 2월까지 겨울 기획전 진행

겨울의 차가운 공기를 포근한 감성으로 덮어줄 특별한 공예 기획전이 전주에서 펼쳐진다.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전주한옥마을 내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겨울 기획전 '따뜻한 공예가 머무는 곳-온기서린(溫氣棲隣)'을 12월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은 계절별 테마로 이어온 연간 기획전의 마지막 순서로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을 맞는 시기에 어울리는 겨울 특유의 고요함과 절제된 아름다움을 공예적 감성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전시 제목 '온기서린'에는 '따뜻한 기운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전시장 내부는 포근한 색감과 은은한 조명으로 꾸며 관람객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공예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연출했다. 생활 공예품과 감성 오브제가 어우러진 공간은 겨울의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



며, 보고, 느끼고 머물고 싶은 겨울 공예 전시로 완성됐다.

특히 기획전 내부에는 크리스마스 트리와 눈사람 모형을 설치해 따뜻하고 풍요로운 겨울 분위기를 한층 강조했다. 은은한 조명과 겨울 소품, 조형물이 조화를 이루며 연말연시 특유의 설렘과 포근함을 전달하고, 관람객이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가족 단위 관람객은 물론 연인, 관광객 등 다양한 방문객들이 겨울 전시의 분위기를 풍부하게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제6기 대학생 SNS 기자단 모집

국립전주박물관(관장 박경도)이 2026년 한 해 동안 박물관의 다채로운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할 '제6기 대학생 SNS 기자단'을 모집한다.

박물관 홍보에 관심이 많은 전북 지역집 주소 또는 대학교 소재지 기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2025년 8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이다.

이번 제6기 기자단은 기사 기획 및 작성 능력을 갖춘 취재 분야와 영상 기획·촬영·편집 능력을 갖춘 영상 제작 분야로 나누어 각 4명씩, 총 8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기자단은 박물관 특별전과 교육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을 직접 취재하고 SNS 콘텐츠

츠 제작을 통해 국립전주박물관 홍보에 앞장서게 된다. 또한 취재 활동에 따라 활동사례비가 지급되며, 타지역 기자의 경우 교통비와 숙박비도 지원된다.

이 외에도 기자단에게는 위촉장과 기자증, 명함, 활동증명서가 제공되며, 연말 우수 기자에게는 국립전주박물관장상이 수여된다. 더불어 기자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도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2월 29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되고, 합격자는 2026년 1월 8일 오전 중 발표된다.

/장은성기자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족센터장, 선진지 견학·워크숍 성료

전북여성가족재단 산하 전북특별자치도가족센터(센터장 우소영)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족센터장이 참여한 '경상남도가족센터 선진지 견학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광역·기초 가족센터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타 지역의 우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 위해 추진되었으며, 경상남도가족센터 기관소개, 협업 모델 공유, 질의응답 등 프로그램을 통해 운영진단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세대별 소통법'을 주제로 한 소통 교



육과 통영·산청 일대에서 진행된 소진에방 프로그램을 통해 센터장들의 심리적 회복과 조직 내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장은성 기자

▶서평 - 우범기 '꿈꾸는 전주성'

우범기 전주시장이 '꿈꾸는 전주성'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단순한 시정 보고서가 아닌 바쁜 일정 속에서도 밤을 새워 써 내려간, 전주를 향한 한 사람의 간절한 사랑 고백이자, 전주의 발전적 미래를 생각하며 써 내려간 절박한 호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7일 오후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1호 당원인 96세 권노갑 고문을 비롯해 3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우 시장이 그간 쌓아온 인간적 신뢰와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천년고도 전주는 후백제의 왕도이자 조선 왕조의 발상지, 동학농민혁명의 성지였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도시 전주시가 지난 50여 년 간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우 시장은 "전주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의 글에는 도시 소멸이라는 현실 앞에서 "지금 당장 정신 차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절절히 배어있다. 이는 통개나 구호가 아닌, 폐부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어린 더욱 독자의 가슴을 울린다.

전북 부안 출신으로 해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한 우 시

전주시의 대전환을 꿈꾸다

“후백제 왕도 전주, 이대로 뒤선 안돼” 호소

장은 30년 넘게 국가의 경제 정책을 이끌어온 고위 경제 관료 출신이다.

그가 강조하는 행정 철학은 명확하다. “행정은 멀리, 크게 보아야 한다.” 허례와 과장을 배제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그의 접근 방식은 '꿈꾸는 전주성' 전반에 흐르는 핵심 가치다.

특히 그는 현 시점에서 정치적 가치보다 행정적 가치에 무게를 두고 고뇌한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행정아발로 혁신적 가치와 정신적 구실을 안내하는 진정한 길잡이라는 그의 신념이 책 곳곳에서 빛을 발한다.

전주는 한 국가의 뿌리이자 왕의 도시였다. 이 땅의 지적, 문화적, 문명사적 혁명의 원천이었던 전주가 이제 쇠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우 시장은 역설한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전주 시민 한 분 한 분이 왕이다.”라는 섬김의 마음으로 전주 시민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우 시장의 진실된 마음이다. 그리고 전주시민과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혁신할 때, 비로소 전주의 큰 꿈이 실현될 수 있

다고 그는 생각한다.

우 시장은 이 책에서 지금이 바로 전주 대전환의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한다. 뒤쳐진 산업화의 미련을 버리고 탄소중립 시대로 과감히 점프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의 진단은 냉정하면서도 희망적이다.

“뒤돌아보는 순간 전주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민선 8기 동안 장애물을 치우고 필요한 재료를 철저히 준비해 온 그는, 이제 전주 시민과 함께 본격적인 그림을 그릴 준비가 되었다고 선언한다.

변화의 동력은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그는 말한다. 시민들의 내적 동기, 도시의 외연 확장, 그리고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이 세 바퀴가 함께 굴러갈 때 전주는 비로소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꿈꾸는 전주성'은 시민들에게 '전주의 큰 꿈'을 공유하려는 우 시장의 강렬한 호소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결속을 키우고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한 연대 촉구 사이사이에 앞만 보고 달려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이 절박한 순간에 전주 대전환에 동참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이기도 하다.



지난 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하림미션홀에서 열린 우범기 전주시장 출판기념회.

우범기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인간 우범기'와 '전주시장 우범기'의 시간을 시민들과 나누고자 한다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이기도 하다. 그의 이러한 진실된 마음은 전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함께 행동을 촉구하는 울림으로 다가온다.

'꿈꾸는 전주성'은 한 도시의 운명이 걸린 전환점에서 나온 역사적 기록으로 위기를 직시하고 본질을 추구하며,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자는 것이 이 책이 주는 메시지로

다. 이는 전주 시민뿐 아니라 쇠퇴와 변화의 기로에 선 모든 지역에 큰 울림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금, 전주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그리고 우범기 전주시장은 그 꿈을 시민들과 함께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 시장의 책 '꿈꾸는 전주성'이 바로 그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오만호기자